

“전북을 청년기회 특별도로”

‘도지사 출마’ 김윤덕 의원, 인구청년지원단 신설·예산 증액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 나선 김윤덕(전주 갑) 국회의원은 “전북을 청년기회 특별도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 나선 김윤덕 의원이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의원은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청년지원단 신설 등 청년이 정책을 직접 주관하고, 도지사가 직접 행기는 정책 실현으로 3대가 같이 사는 전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특별도 세부 공약으로 ▲인구청년지원단 신설 ▲순수청년 예산 5배 증액, ▲청년 꿈이론 주택 건설 보급 ▲기술(인재)위원회, 전북 연합대학지원센터 설치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도내 청년은 매년 6천여 명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는 등 청년 현실은 암담하지만 하”며 “청년기회 특별도 대한민국 청년 정책 일선지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도청 내에 인구청년지원단을 신설해 청년 당사자들이 청년 정책을 주관하고, 지역거점별

청년 커뮤니티 센터를 구축하는 등 청년 일자리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또, “청년창업펀드 신규

조성 지역 유망 초기 창업 청년 창업 자 사업화 지원 청년 자선형성 통장 지원 사업 확대, 출자·출연기관 지역 청년 의무고용 확대, 순수 청년 예산 5배 증액한 500억원 총 예산 3000억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정착의 기초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꿈이론 주택’ 건설을 통해 월 15만원 수준의 저렴한 거주 공간을 조성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차보전 지원 및 벌이 부부를 위한 안심 보육센터 신설 등 마을 농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의원은 “도지사 직속으로 ‘기술(인재)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북 연합대학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미래형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윤덕 의원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전북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우리의 아들, 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노인수당 50만원 지급”

유성엽 도지사 예비후보



유 후보는 “우리 전북은 노인 자존감이 매년 20% 인박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유성엽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11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을 갖고, “노인수당 50만원으로 폐지 줍는 노인 없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꾸준히 감소했으나 OECD 37개국 평균보다 여전히 높고, 세계 10위권 경제력에 비해 노인빈곤은 심각한 수

준이라고 지적하며, “다만 상대인 공무원이 차츰 개선되는 추이는 노인수당(기초연금)이 인상되는 정책적 결과”라고 진단했다.

유 후보는 특히, “우리 전북은 노인 자존감이 매년 20% 인박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노인수당 5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유성엽 후보는 “빈곤으로부터 해방된 노인 삶의 질은 향상되고, 행복 지수는 높아질 것”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된 전북에 사시는 노인들께서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유호상 기자

“세계 최고의 경제순환 도시 만들 것”

송지용 도의회 의장, 완주군수 출마 선언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11일 완주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 의장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는 의회라는 견제의 정치를 해왔지만, 이제는 군수라는 경영의 정치에 나선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완주군은 더 좋은 일자리 더 나은 경제, 더 따뜻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며 “세계최고의 경제순환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위기의 시대의 불신, 불화합 그리고 우리 삶을 위협하는 불평 등 사회를 바꿔야 한다”며 “지금은 ‘소극적 수비’보다 ‘적극적 공격’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북현대 전 최강의 감독의 공격적 축구 스타일인 ‘타동 차림’돌파정리로 완주군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군민들이 원하는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강용구 도의원, 3선 도전

“지난 8년 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남원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전북도의회 강용구 도의원(남원2)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3선 도의원 출마를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회의 소속으로 전북도지사 출마하는 양정무 랑스필드 회장이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제10대와 제11대 전북도의회 의원으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사랑 덕분”이라며 “남원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신 신뢰와 믿음에 보답하고자 힘 있는 3선에 도전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공약으로 공유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청년일자리), 전북형 인생3모작 중장년 일자리, 청년코비일 보부상 지원, 옷칠, 목기 등 전통산업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제시했다.

국힘 전북도당 지방선거 공보 30명 접수

강용구 의원은 “우리 남원에 3선의 경험 많고 능력 있는 힘 있는 도의원이 필요하다”면서 “남원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남원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운천)는 지난 8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공보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공보에는 전북도지사 후보를 제외하고 총 30명이 지원했다.

또한, 13일까지 지방선거 공천 신청 자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적·부적격자를 가려내고, 이번 주 내로 단수공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회의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민주당 독주체제를 막고 진정한 전북발전을 위해 합을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전철시대 열 것”

‘도지사 출마’ 안호영 의원



일시: 2022년 4월

“새만금·군산·익산 전주 30분 내로 연결”

전북도지사 출마예정자인 안호영 국회의원이 11일 “정부 철도정책에서 전북이 더 이상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새만금과 군산 익산 전주를 30분 내로 연결하는 전북 전철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지사 출마예정자인 안호영 의원이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철도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시설 투자에 산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전북은 수도권, 영남 그리고 호남 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이제 전북에서도 국가철도망을 활용해 직장인은 편리하게, 통학생은 안전하게, 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전북 철도 대중교통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주 주철선 구간을 통해 전북전철시대 개막을 위한 기본 인프라는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확보된 선로를 활용해 최고속도 시속 180km로 달리는 ITX 새마을급 전철을 투입하면, 새만금~군산~익산~전주를 잇는 전철은 총 주행시간이 35분으로 30분대 생활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철 운영 방안에 대해 안 의원은 “운전은 코레일이 맡고, 초기 수의성 문제는 전북도와 운행구간 지자체가 손실을 지원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설관리와 승차권 판매 등 여사운영은 전북개발공사 내에 교통사

업처를 신설, 승무서비스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철운영은 3단계로 진행된다. 새만금~군산~익산~대야~익산~전주 구간 중 이미 개통된 선로와 기존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대야~익산~전주 전철화 구간부터 우선 운행하고 2단계로 새만금~군산~익산~대야 구간을, 3단계로 전주~남원 구간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 전철 개통은 30분대 생활권뿐만 아니라, 새만금 지역의 기업 유치와 지역 간 인적교류 및 전북 문화관광사업 활성화로 이어져 전북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호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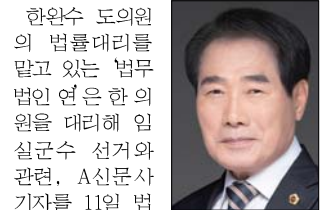
“송하진 도지사 3선 반대”

전북민중행동이 11일 전북도의회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3선을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한완수 도의원, 허위사실

보도 관련자 고소 조치



한완수 도의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연은 한 의원을 대리해 임실군수 선거와 관련, A신문사 기자를 11일 법적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완수 도의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연은 한 의원을 대리해 임실군수 선거와 관련, A신문사 기자를 11일 법적 조치했다고 밝혔다. A신문 기자는 지난 5월 기사를 통해, 한 의원의 업무추진비가 부당하게 사용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이러한 기사는 공언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만큼, 이를 보도한 기자와 고발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법적조치까지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이러한 내용이 악의적으로 재생산 및 유통될 경우, 여론이 심각하게 왜곡 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그에 따른 무분별한 고발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출마예정자 측은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마예정자 측은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한편 출마예정자 측은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한편 출마예정자 측은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민주당 정치교체 약속 지켜야”

김관영 도지사 예비후보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치 교체 약속을 주장하며, 3선을 노리는 송하진 도지사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를 요청했다.

김 전 의원은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지금 반성과 혁신의 시간이며, 민주당의 심장인 전북부터 혁신해야 한다”며 “전북의 과감한 ‘정치교체’로 전국 지방선거 승리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 반성과 혁신의 시간이며, 민주당의 심장인 전북부터 혁신해야 한다”며 “전북의 과감한 ‘정치교체’로 전국 지방선거 승리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전북정치 혁신은 민주당을 지켜온 전북도민에 대한 정치적 도리”라며 “전북 정치 혁신의 제1 관문은 도지사 선거다. 장기집권하고 있는 도지사를 앞세워 혁신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송하진 지사의 3선 도전에 대해 “도지사의 과욕이 정치혁신의 결실물이 되고 있다. 시장 8년, 도



안호영 지지 선언한 전북 수산업계 종사자들

전북 수산업계 종사자들이 1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안호영 전북도지사 출마예정자 지지를 선언했다.

/유호상 기자